‘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모교’ 주연 김서형의 두번째 여고괴담

“늘 죽을 듯 연기…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16년 전 교사서 모교 교감으로
“사실 겁이 많아 공포영화 안 봐
센 캐릭터 연기, 피할 수는 없죠
시리즈가 10편까지는 가야죠!”

영화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모교’의 주연 김서형은 “아이들의 아픔에 손잡아줘야 하는 건 어른”이라고 말한다. ‘여고괴담’ 시리즈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으로 출연한 그가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사진제공 | kth

“무너지더라도 피하지 말자. 숙명이다.”

주어진 것을 그저 받아들여서가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일지 모른다. 배우 김서형은 “스스로 다그치지 않고, 가두려 하지 않으며, 그래서 스스로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개봉한 영화 ‘여고괴담:여섯번째 이야기:모교’(모교, 제작 씨네2000·감독 이미영)도 그 노력의 무대이다. 극중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모교에 부임한 교감인 그는 학교 안에 스며든 공포 속 진실을 찾아 나선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생채기를 확인하며 과거와 현재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김서형은 2005년 ‘여고괴담4:목소리’에도 교사 역으로 출연했다. 16년이 지난 뒤 교감 역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노력과 역설을 오가며 ‘여고괴담’ 시리즈에 대한 애정으로 21일 온라인 화상인터뷰를 시작했다.

-16년 만에 시리즈 신작을 선택했다.

“시리즈가 10편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 몸을 아끼지 않았다.(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하며 두 차례 뇌진탕 증상을 앓기도 했다.) 사실 겁이 많아 공포영화를 잘 보지 못한다. ‘여고괴담’ 시리즈도 모두 보지는 못했다. 이제 들여다보겠다. 소리라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와 학생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각 이야기의 맥락은 같다. 흥행과 상관없이 7편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번 이야기로 관객이 가슴에 품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나.

“어른들의 부재! 결국 손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다.”

-시리즈는 배우 등용문으로도 불린다. 학생 역 김현수·최리·김형서 등과 호흡은 어떤가.

“똑 부러지더라. (가수 비비로 활동 중인)김형서는 연기자가 더 맞지 않나 싶었을 만큼. 현장에서는 서로 연기하는 데 에너지를 주고 시너지에 의지한다. 어린 후배들이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 동료이다. 그건 모든 스태프의 도움 덕분이기도 하다. 나도 그 덕에 연기한다.”

이렇듯 선배의 의연한 생각을 밝힌 그는 그동안 유난히 ‘센캐’(강한 성격의 캐릭터)를 많이 연기해왔다. 상당한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평범하고 유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지 않나.

“배우의 숙명이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서운하기도 하지만, 피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맞닥뜨려 힘들지만 더 좋은 시너지를 얻기도 했다. 이미지에 갇힐까 10년 전부터 걱정하기도 했다. 갇힐 수 있는 걸 열어보려 고민했다. 돌파하는 힘도 내게 달렸다. 오히려 존재감이 더 발산되는 때도 많았다.”

-그러려면 감정소모도 심할 텐데, 그만큼 강한 사람인가.

“늘 변화해야 한다는 강박,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다며 나를 다그치는 것. 하지만 그러다 보면 소모가 더 크다. 그 소용돌이에 많이 무너진다. 혼술을 하거나 일주일 내내 울어보기도 한다. 그래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걸 넘어서야 작품을 온전히 끝낼 수 있더라. 그러니 버티며 27년 동안(1994년 KBS 16기 공채 탤런트) 연기해오지 않았을까. 주저하지 않고 겪는 게 맞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죽을 듯 연기한다. 그게 살아있는 이유이고, 배우의 이유이다. 운명이다. 어떤 소용돌이도 피하지 않고 버텨야, 평생 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

김서형은 운명과도 같은 연기를 현재는 tvN 화제의 드라마 ‘마인’에서 펼치고 있다. 역시 강렬한 인상의 캐릭터이다. 재벌가 큰며느리이면서 동성애의 미묘한 감정을 풀어낸다.

“이번에 멜로연기를 해보니 더 쉽더라. 배우는 골라서 할 수 없다. 뭐든 해야 하니까. 나도 멜로연기가 가능하다.(웃음) 고민도, 부담감도 없었다. 멜로가 왔으니 잘해야 또 다른 또 다른 멜로가 오겠지 하는 기대가 더 컸다. 하하!”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웹 드라마’선 이미 스타…안방극장에 뜬 예비스타

이세희·강민아 등 ‘웹 드라마의 요정’
최현욱·김민기도 1020세대에겐 친숙

‘슬의생’ 이세희

‘멀리서 보면…’강민아

‘라켓소년단’ 최현욱

최근 안방극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는 신인 연기자들에게는 공통의 별명이 있다. ‘웹 드라마의 요정’이다. 웹 드라마에서는 이미 주연으로 통해온 이들이 ‘1020’세대로부터 얻은 지지와 눈도장을 발판삼아 안방극장에 진출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17일부터 방송한 tvN 목요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이세희가 대표적이다. 극중 율제병원 응급의학과 1년차 펠로우 강소예 역이다. 출연 분량은 적지만, 통통 튀는 발랄함으로 눈길을 사로잡아 1회 만에 화제의 인물로 올라섰다.

이세희는 시청자에게 아직 낯설지만 ‘진흙탕 연애담’ ‘샌드위치 이론’ ‘연남동 키스신’ 등 다수의 웹 드라마 주연을 거쳐 9월 방영하는 KBS 2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를 일찌감치 차기작으로 확정했다.

최근 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넘긴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의 주연 최현욱과 김민기도 있다. 웹 드라마 ‘만찢남녀’ ‘리얼:타임:러브’ 시리즈 등에 출연, 1020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다. 드라마에서 전남 해남의 중학교 배드민턴부원을 연기하면서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KBS 2TV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의 강민아는 ‘에이틴’ ‘언어의 온도:우리의 열아홉’ 등 웹 드라마를 주 무대 삼아왔다. 최근 제작발표회를 통해 “지상파 주연이 처음이어서 부담되지만 이름을 알릴 기회”라며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최수종, 축구경기중 오른팔 골절 전치 10주

최수종

배우 최수종이 축구 경기 중 오른팔뼈가 부러져 수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소속사 측은 “최수종이 최근 축구 경기를 하다 오른팔 골절로 전치 10주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오전 긴급 수술 후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수종은 깁스를 한 상태로 최소 10주 이상 안정을 취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팔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어 아내 하희라와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차질 없이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와이스 ‘테이스트 오브 러브’, 빌보드 200 6위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가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6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21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열 번째 미니음반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6위를 차지했다. 케이팝 걸그룹이 해당 차트 톱10에 오른 것은 블랙핑크(2위)에 이어 트와이스가 두 번째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2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예슬, 루머 퍼뜨린 유튜버 상대 법적대응

한예슬

배우 한예슬이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한예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예슬은 “이런 상황이 허용이 되고 심지어 그들이 처벌보다는 지지 받을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